

노인의 우울, 절망감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강 난 미¹⁾

정 현 희²⁾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 절망감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D광역시와 K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 절망감 척도, 자살생각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그리고 절망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상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탐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모형들에 대하여 적합도와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비교 검증한 결과,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완전매개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때 절망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과 절망감의 발달 경로와 상대적 기여도를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노인의 자살생각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방안과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 우울, 절망감, 자살생각, 완전매개

1)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수료, 대구중구노인상담소, 소장

2) 교신저자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정교수 (E-mail : hhchung@kmu.ac.kr)

I. 서론

자살은 막대한 사회적 자본을 소실시키고 주변에 충격적인 파급효과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사망률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원시연, 2011).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 자살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노인의 자살이 일반적인 자살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Szanto, Prigerson과 Reynolds III(2001), Wenzel, Brown과 Beck(2009)은 섭식 및 투약 거부, 자기방임처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침묵적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소망 등이 노인 자살시도의 높은 위험과 직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Dombrowski, Szanto와 Reynolds(2005), Szanto 등(2001)과 Wenzel 등(2009)의 연구에서도 다른 연령대의 자살과 달리 노인은 신체 건강상 자살을 시도했을 경우에 자해에서 회복하기가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구조 가능성이 낮아 자살시도가 성공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well 등(1998)과 De Leo와 Meneghel (2001)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노인들은 자살생각을 개방하지 않고 오랫동안 혼자 생각하다가 자살을 결행하기 때문에 임상가의 관심을 끌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자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살시도에 앞서 발생하는 자살생각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Crosby(2007: Wenzel et al., 2009에서 재인용)는 자살생각이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심상, 신념, 의견, 혹은 인지를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행연구들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살시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Wenzel et al., 2009). 다른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은 주요 우울삽화의 진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자살위험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단서임을 밝혔다(Brown, Beck, Steer, & Grisham, 2000).

특히 많은 노인들이 자살로 사망할 즈음에 우울장애를 겪으며(Conwell, Caine, & Olson, 1991; Rich, Young, & Fowler, 1986; Szanto et al., 2001), 노년기의 우울증은 자살생각만이 아니라 자살시도 및 성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Uncapher, Gallagher-Thompson, Osgood, & Bonger, 1998). 이런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우울증의 증상인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밝혔다(Alloy, Abramson, Metalsky, & Hartlage, 198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Beck, Kovacs, & Weissman, 1975; Greene, 1989; Joiner et al., 2005; Uncapher et al., 1998). 권석만(2003)은 기분이 가라앉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우울이라고 정의하였는데 Flett, Blankstein과 Obertinsky(1996)도 우울을 정서적 차원으로 보았다. 반면 Wenzel 등(2009)은 절망감을 인지적 차원으로 보았으며 Beck, Weissman, Lester와 Trexler (1974), Joiner 등(2005)

은 절망감을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부정적인 기대와 긍정성이 결여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을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들은 많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자들은 노년기 자살이 절망감보다 우울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arracough, Bunch, Nelson, & Sainsbury, 1974; Conwell et al., 1991; Conwell & Brent, 1995; Rich et al., 1986). 그러나 자살을 감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회고적(retrospective) 연구(Dahlsgaard, Beck, & Brown, 1998)에서는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절망감이 우울보다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더 강력한 변인으로 주장되었다(Beck, 1986; Beck, Steer, Kovacs, & Garrison, 1985; Bonner & Rich, 1991; Wenzel et al., 2009; Wetzell, 1976).

학자들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으로 가는 발달경로나 인과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국외에서는 Chochinov, Wilson, Enns와 Lander(1998)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절망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 연구로는 장미희(2006)가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개인적 특성변인, 가족변인, 사회문화적 변인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절망감, 우울, 자살생각을 내생변인으로 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절망감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우울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3배 정도 더 높아서 절망감이

우울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노인집단을 비교한 추경진, 이승연(2012)의 연구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권중돈, 임태영 및 김유진(2012)의 연구에서도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독립변인들이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우울이 자살생각을 매개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배지연(2004)은 개인변인, 가족변인, 사회문화변인이 우울과 절망감을 매개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절망감의 직접효과가 우울보다 더 낮으며 우울을 매개로 할 때에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Rudd(1990)도 우울이 절망감보다 자살생각과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절망감 매개가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육성필(2002)의 연구에서도 우울은 단독으로 자살생각을 60%이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망감은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노인과 도시노인, 한국노인과 캐나다 한인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박봉길, 전석균, 2006; 양순미, 임춘식, 2006). 이외에도 우울이 심리사회적인 복합적 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매개한다는 보고가 있다(정호영, 노승현, 2007; 조계화, 김영경, 2008; 최형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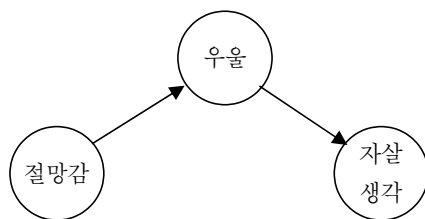
지금까지 자살생각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우울과 절망감 외에 어떤 심리사회적 변인을 포함했느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김형수, 허평화(2010)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한국 노인의 자살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른 변인을 배제하고 우울, 절망감과 자살생각만으로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 연구결과, 서구의 절망-자살 인과모델과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절망보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더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민섭 등(1990)의 연구 이후, 국내 선행연구들은 오히려 우울, 절망감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김현순, 2008; 장미희, 2006). 물론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본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변인이 다양해질수록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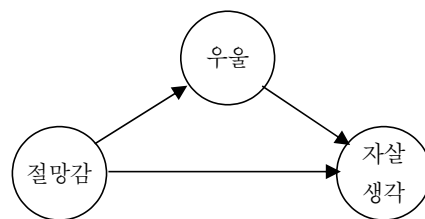
도 달라지는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관여하는 우울과 절망감의 발달경로나 상대적인 기여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진 인지적 차원의 절망감과 정서적 차원의 우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세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onick과 Gutierrez(2005)의 제안에 따라 선험적 예측을 하는 연구모형을 두지 않고, 경험적 자료에 의해 자살생각과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다수의 모형을 상정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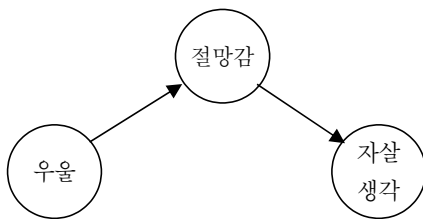
먼저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결과(김현순, 2008; 배지연, 2004; 신학진, 2012a; 육성필, 2002; 이현지,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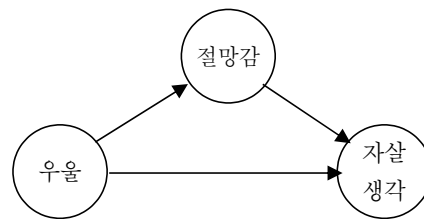
모형 1 우울 완전매개모형



모형 2 우울 부분매개모형



모형 3 절망감 완전매개모형



모형 4 절망감 부분매개모형

그림 1. 우울 및 절망감 완전, 부분매개모형

명희, 2007; 추경진, 이승연, 2012)에 근거하여 우울을 매개로 하는 완전매개모형(모형 1)과 부분매개모형(모형 2)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한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결과(Chochinov et al., 1998; Konick, Gutierrez, 2005)를 근거로 절망감을 매개로 하는 완전매개모형(모형 3)과 부분매개모형(모형 4)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네 모형들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 모형 중 우울과 절망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와 K도에 거주하는 60세 부터 90세 이하 노인이다. 표집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봉사단체의 노인과 경로당 이용 노인, 그리고 노인 돌봄 사업 대상 독거노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 등 다양한 환경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총 50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노인의 특성상 자살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Wenzel 등(2009)이 사용한 것처럼 Beck 등(1979)의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에서 자살생각을 선별하는 4, 5번 문항에 응답한 27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자가 노인상담 경험이 풍부한 노인전문상담봉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검사 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설문 조사는 보조자들이 노인에게 문항을 불러주고 응답을 대신 기입하거나,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한국판 노인우울 척도 단축형

노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Sheikh와 Yesavage(1986)의 GDS Short Form을 기백식(1996)이 번안한 한국판 노인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르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끼니까?’ ‘자주 울고 싶다고 느끼니까?’ 등 모두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도 높은 것으로 해

표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포

단위: 명(%)

성별	연령			합계
	60대	70대	80대 이후	
남	36(37.5)	44(45.8)	16(16.7)	96(100)
여	37(21.1)	61(34.9)	77(44.0)	175(100)
합계	73(26.9)	105(38.8)	93(34.3)	271(100)

석된다. 기백석(1996)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비활력과 우울요인으로 이루어진 2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요인 1의 Cronbach α 계수는 .94, 요인 2의 Cronbach α 계수는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무기력과 슬픈 감정으로 명명되는 두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은 .88과 .60의 신뢰도를 보였다.

절망감 척도

노인의 절망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Beck 등(1974)이 개발한 절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PL)를 신민섭 등(1990)이 우리말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BHPL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측정하고자 제작된 20문항의 자기 보고형 척도이며,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절망감 수준도 높은 것을 뜻한다.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9이었다. 절망감을 잠재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가 제안한 방식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슷한 평균의 요인부하량을 가지도록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배분한 뒤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측정변수의 내용적 의미를 반영하여 요인 명을 분류하기가 어려워 절망감 1, 절망감 2, 절망감 3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90이었고, 각 하위요인들은 .74, .76, .78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살생각 척도

노인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ck 등(1979)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신민섭(1992)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며, 검사 시 임상가의 필요에 의해 원하는 루트를 선별해서 인터뷰하는 것이 가능하다(Beck et al., 1979). 총점은 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도 높은 것을 뜻하며,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민섭(199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Russell 등(1998)이 제안한 방식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슷한 평균의 요인부하량을 가지도록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배분한 뒤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의 하위요인도 절망감 척도의 하위요인을 명명한 방법과 같이 자살생각 1, 자살생각 2, 자살생각 3으로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87이었고, 각 하위요인들은 .66, .66, .68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의 문항

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여러 적합도 지수 가운데 절대적합지수인 χ^2 , SRMR,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우종필, 2012). 넷째, 선정된 모형의 구조경로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최종 모형에 대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효과를 분해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우울, 절망감과 자살생각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울은 자살생각보다 절망감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변인 중 무기력은 절망감의 하위변인인 절망감 3, 절망감 2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하위변인인 자살생각 1은 슬픈 감정이나, 절망감의 세 하위변인들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은 .90이하이므로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

표 2. 측정변인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

(N = 27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우울	무기력	1							
	슬픈 감정	.52**	1						
절망감	절망감1	.55**	.52**	1					
	절망감2	.64**	.52**	.74**	1				
	절망감3	.69**	.42**	.69**	.81**	1			
자살생각	자살생각1	.32**	.20**	.24**	.26**	.26**	1		
	자살생각2	.40**	.26**	.31**	.36**	.40**	.70**	1	
	자살생각3	.43**	.33**	.33**	.38**	.41**	.71**	.78**	1
기술	M	4.89	2.33	3.30	3.22	3.52	8.95	8.26	9.53
통계	SD	3.41	1.51	1.89	2.15	2.24	2.12	2.19	2.33

주. ① 무기력 ② 슬픈 감정 ③ 절망감 1 ④ 절망감 2 ⑤ 절망감 3 ⑥ 자살생각 1 ⑦ 자살생각 2 ⑧ 자살생각 3.

** $p < .01$.

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모형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Amos 18.0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그림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의 정규분포성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첨도는 모두 2 이하로 7보다 작았고 왜도는 2 이하로 3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모수를 추정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7.204$, $df = 17$, $\chi^2/df = 2.777$, RMSEA = .081, SRMR = .033, NFI = .966, TLI = .963, CFI = .978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의 부하량이 .50 이상이고, 개념신뢰도 값 역시 .96~.99(.70 이상)이며, AVE 값도 .92~.97(.50 이상)로 산출되어 집중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 역시 우울과 절망감의 상관이 다소 높지만($r = .87$), 각 구성개념의 AVE 값이 각 구성개념간 상관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에 ±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한 결과가 1을 포함하지 않아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구성개념별 상관관계가 모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법칙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1(우울 완전매개)과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영향을 주는 모형 2(우울 부분매개), 그리고 우울이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3(절망감 완전매개)과 우울이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영향을 주는 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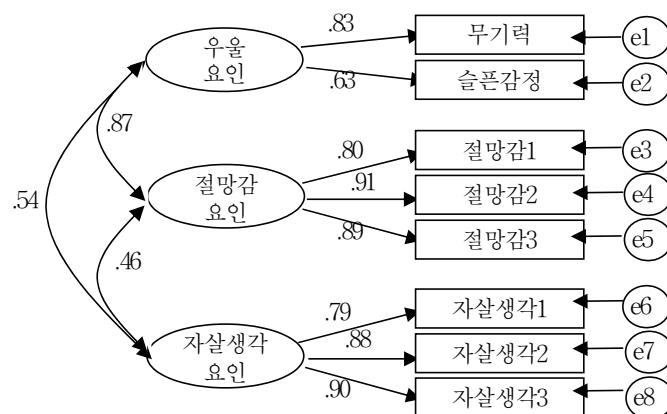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표 3.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

구성개념	요인	구성개념 타당성					AVE
		표준 요인부하량	S.E	t값	p	개념 신뢰도	
우울	무기력	.83	.02	14.35	< .001	.96	.92
	슬픈 감정	.63	.02	10.56	< .001		
절망감	절망감1	.80	.02	15.47	< .001	.99	.97
	절망감2	.91	.02	19.04	< .001		
	절망감3	.89	.02	18.11	< .001		
자살 생각	자살생각1	.79	.02	14.91	< .001	.99	.96
	자살생각2	.88	.02	17.43	< .001		
	자살생각3	.90	.02	18.09	< .001		

표 4. 우울 완전매개모형 1과 우울 부분매개모형 2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df	χ^2/df	RMSEA (90%신뢰구간)	SRMR	NFI	TLI	CFI
우울 완전매개	47.281***	18	2.627	.078 (.051~.105)	.033	.966	.966	.978
우울 부분매개	47.204***	17	2.777	.081 (.054~.109)	.033	.966	.963	.978

*** $p < .001$.

표 5. 절망감 완전매개모형 3과 절망감 부분매개모형 4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df	χ^2/df	RMSEA (90%신뢰구간)	SRMR	NFI	TLI	CFI
절망감 완전매개	56.084***	18	3.116	.089 (.063~.115)	.043	.960	.956	.972
절망감 부분매개	47.204***	17	2.777	.081 (.054~.109)	.033	.966	.963	.978

*** $p < .001$.

(절망감 부분매개)가 실제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위에 제시한 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 표 5에 각각 제시하였고,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를 각각 살펴본 결과, 모형 1에서 절대적합지수인 χ^2 은 $p < .001$ 로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유도를 고려한 χ^2/df 는 모형이 표본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08 이하)와 SRMR(.05 이하)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NFI, TLI, CFI(.9 이상)도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모형 2에서도 χ^2 은 $p < .001$ 로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유도를 고려한 χ^2/df 는 모형이 표본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FI, TLI, CFI와, RMSEA, SRMR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리고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모형 1과 모형 2는 자유도 1 차이일 때, χ^2 값이 0.07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χ^2 차이 검사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부분매개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1). 따라서 두 모형 중 우울 완전매개모형인 모형 1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모형 3과 모형 4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 3에서 절대적합지수인 χ^2 은 $p < .001$ 로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유도를 고려한 χ^2/df 는 모형이 표본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1 이하)는 보통의 적합도를, SRMR(.05 이하)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리고 NFI, TLI, CFI(.9 이상)도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모형 4에서도 절대적합지수인 χ^2 은 $p < .001$ 로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유도를 고려한 χ^2/df 는 모형이 표본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FI, TLI, CFI와 RMSEA, SRMR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리고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모형 3과 모형 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모형 중 절망감 부분매개모형인 모형 4가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그래서 이론적 모형과 경험적 자료가 부합되는 모형은 우울 완전매개모형 1과, 절망감 부분매개모형 4로 확인되었다.

4. 모형 1(우울 완전매개)과 모형 4(절망감 부분매개)의 경로계수 및 유효성 검증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1과 모형 4에서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

표 6. 우울 완전매개모형 1과 절망감 부분매개모형 4의 경로계수 및 유효성 검증 ($N = 271$)

모형	경로	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C.R.
우울 완전매개	절망감→우울	.87	.08	12.90***
	우울→자살생각	.53	.07	7.43***
절망감 부분매개	우울→절망감	.87	.08	9.96***
	절망감→자살생각	-.06	.25	-.27
	우울→자살생각	.59	.25	2.38*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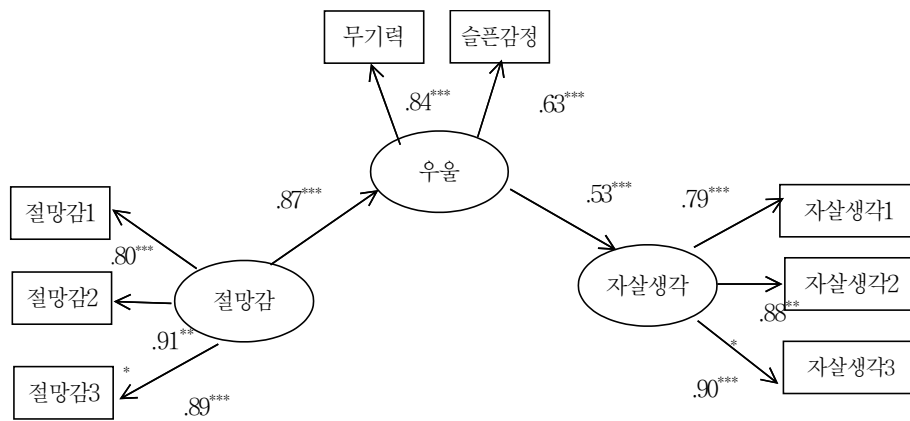


그림 3. 우울 완전매개모형 1의 경로도

*** $p < .001$.

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기준은 양측검정으로 .05 유의수준에서 C.R의 절대치가 1.96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모형 4는 절망감이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절망감 부분매개모형은 기각되었다. 모형 1은 절망감→우울 경로, 우울→자살생각의 경로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절망감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그래서 우울 완전매개모형인 모형 1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모형 1의 경로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5. 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우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절망감→우울→자살생각의 경로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절망감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

표 7. 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절망감→우울	.869**		.869**
우울→자살생각	.533**		.533**
절망감→우울→자살생각		.463**	.463**

** $p < .01$.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망감이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절망이라는 인지적 과정이 우울이라는 정서적 과정으로 발전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헌진(2012b)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신민섭 등(1990)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인지적 요인인 절망감보다 정서적 요인인 우울이 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는데, 노인의 경우에도 청소년처럼 우울이 중요한 변인임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절망감보다 우울의 정도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Uncapher 등(1998)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우울이 절망감을 거쳐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Rudd(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우울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절망감 자체만으로는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Szanto 등(2001)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노인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보다 우울한 정서의 영향으로 자살생각이 유발된다면, 우울증은 전문적 도움으로 회복이 비교적 잘되기 때문에(권석만, 2003)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은 예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이 절망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Konick과 Gutierrez(2005), Chochinov 등(1998)의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또한 우울이 자살생각의 중요한 매개변인이긴 하지만, 자살생각에 절망감이 우울보다 더 큰 직접효과가 있다는 장미희(2006)의 연구와도 일부 맥락이 달랐

다. 본 연구에서 비록 절망감의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절망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절망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노인세대는 젊은 층보다 경제력의 상실, 건강의 상실, 죽음으로 인한 이별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살아봤자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식의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우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우울은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성필(2002)과 김현순(2008)의 연구에서 절망감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우울이 매개될 때 자살생각을 높인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우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입증한 김동배와 박서영(2010), 김현순과 김병석(2007), 그리고 황미구와 김은주(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맥락이 같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자살생각을 감소하는데 있어서 우울의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울한 노인에게 대한 개입이 곧 노인 자살예방의 단초가 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노인은 젊은 시절에 유교적 문화였던 시대를 살아서 감정표현을 억압하고,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정신적 갈등 등을 신체기관에 투사함으로써 우울증을 신체증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박봉길, 전석균, 2006). 따라서 노인의 경우, 우울하다고 말하기보다

몸이 아프다고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질 병과 우울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노인의 우울을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이다. 외국 연구에서도, 의사들 역시 자살생각과 우울증상을 가진 환자를 진료할 때 젊은 환자보다 노인 환자의 치료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Uncapher & Arcan, 2000). 또한 고령일수록 노인 스스로 우울증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이선훈, 고정은, 2009) 우울한 노인에게 대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방해하고 있다.

김형수(2002)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우울한 노인에게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이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우울증 선별의 날(National Depression Screening Day)을 매년 실시하여 우울증을 선별·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노인이 자살하기 몇 달 전, 일차 진료기관을 방문한다는 연구결과(Szanto et al., 2001)에 착안하여서 일차 진료기관의 의사를 돕기 위한 자살생각 감소와 우울증 예방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차 진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우울증을 선별하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신체질병으로 오인해서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개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의사나 보건소 및 상담종사자에게도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자살예방전문교육이 꼭 필요하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비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노인상담소를 활성화시켜 우울증 예방과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일반 노인들에게도 우울증을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하여, 자신의 우울증상을 식별하는 인식을 확보하게 되면 노인 스스로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절망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절망감의 간접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즉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해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여기는 절망감이 우울로 발전하여 마침내 자살과 연관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Konick & Gutierrez, 2005). 따라서 절망감이 우울을 심화시켜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망감 감소를 위한 개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자원 간 상호 관계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2013). 즉 주변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은 노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변화시키고자 개인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통합적 지원방안은 자살생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에서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으로써, 어떤 변인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우울과 절망감의 영향력도 달라지는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른 변인을 배제하고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를 집중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들 변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힌 점이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Beck(1967)이 주장한 서구 사회의 절망-자살 인과모델과 달리, 우리나라 노인에게는 자살생각이 우울과 더 중요한 인과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구와 다른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생각 예방과 중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의 편증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일반 노인, 노인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노인, 독거노인 등 다양한 환경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노화로 인한 만성 질환이나 암 등의 의학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또는 독거노인이나 시설노인처럼 특수한 거주 환경에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 세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세 변인간의 관계를 국내외의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네 개의 매개모형으로 상정하여 최종모형을 탐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근거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상정하여 최종 모형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 조사 과정에서 보수적인 노인들은 자살생각 질문에 응답하기를 꺼려하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는 연구

자와의 충분한 Rapport 형성을 통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중돈, 엄태영, 김유진 (2012).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독감의 영향 및 무망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089-114
- 기백석 (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 김동배, 박서영 (2010). 노인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자살생각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109-129.
- 김현순, 김병석 (2007).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801-818
- 김현순 (2008).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노인과 청소년간의 차이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김형수, 허평화 (2010). 한국 노인자살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사회과학연구, 36(3), 195-212.
- 박봉길, 전석균 (2006).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을 매개로 한 관련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 58-90.

- 배지연 (2004). 노인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1992).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9(1), 1-19.
- 신학진 (2012a).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절망과 우울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6, 191-216.
- 신학진 (2012b). 노년의 4대 고통이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모형. 노인복지연구, 57, 357-380.
- 양순미, 임춘식 (2006). 농촌노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우울의 효과. 노인복지연구, 32, 377-396.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원시연 (2011).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육성필 (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훈, 고정은 (2009). 노인의 우울증상 식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9(2), 529-546.
-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43-264.
- 장미희 (2006). 노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2013). 노년기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1), 79-99.
- 정호영, 노승현 (2007).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4), 789-805.
- 조계화, 김영경 (2008). 한국노인의 우울, 자살생각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176-187.
- 최형임 (2008).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경진, 이승연 (2012).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청소년과 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31-53.
-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자살의 이해와 예방. 서울: 학지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2001년 3월 워크샵 자료집.
- 황미구, 김은주 (2008).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한국노년학, 28(4), 865-885.

- Alloy, L. B., Abramson, L. Y., Metalsky, G. I., & Hartlage, S. (1988).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Attributional aspec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5-2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Practice guideline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suicidal behaviors*. Washington, DC: Author.
- Barracough, B., Bunch, J., Nelson, B., & Sainsbury, B. (1974). A hundred cases of suicide: Clinical aspec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5, 355-374.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Medical Division, Hapner & Row.
- Beck, A. T. (1986). Hopelessness as a predictor of eventual suicide. In J. J. Mann & M. Stanley (Ed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487. *Psychology and suicidal behavior* (pp. 90-96).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5).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An overview.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34, 1146-1149.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ck, A. T., Steer, R. A., Kovacs, M., & Garrison, B. (1985). Hopelessness and eventual suicide: A 10-year prospective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al ide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559-563.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A.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861-865.
- Bonner, R. L., & Rich, A. R. (1991). Predicting vulnerability to hopelessn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29-32.
- Brown, G. K., Beck, A. T., Steer, R. A., & Grisham, J. R. (2000).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s: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371-377.
- Chochinov, H. M., Wilson, K. G., Enns, M., & Lander, S. (1998).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terminally III. *Psychosomatics*, 39, 366-370.
- Conwell, Y., & Brent, D. (1995). Suicide and aging I: Patterns of psychiatric diagnosi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7, 149-164.
- Conwell, Y., Caine, E. D., & Olson, K. (1991). Suicide and cancer in late life.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1, 1334-1339.
- Conwell, Y., Duberstein, P. R., Cox, C., Herrmann, J. H., Forbes, N. T., & Caine, E. D. (1998). Age differences in behaviors leading to complete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6, 122-126.
- Dahlsgaard, K. K., Beck, A. T., & Brown, G. K. (1998). Inadequate response to therapy as a predictor of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 197-204.

- De Leo, D., & Meneghel, G. (2001). The elderly and suicide. In D. Wasserman (Ed.), *Suicide, unnecessary death*. (pp. 195-207). London: Martin Dunitz.
- Dombrowski, A. Y., Szanto, K., & Reynolds, C. F. (2005). Epidemiology and risk factors for suicide in the elderly: 10-year update. *Aging Health, 1*, 135-145.
- Flett, G. L., Blankstein, K. R., & Obertinsky, M. (1996). Affect intensity, coping styl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221-228.
- Greene, S. M.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opelessness: Implications for current theories of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4*, 650-659.
- Joiner, T. E., Conwell, Y., Fitzpatrick, K. K., Witte, T. K., Schmidt, N. B., & Merlin, M. T. (2005). Four studies on how past and current suicidality relate even when "everything but the kitchen sink" is covarie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291-303.
- Konick, L. C., & Gutierrez, P. M. (2005). Testing a model of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 181-192.
- Rich, C. L., Young, D., & Fowler, R. C. (1986). San Diego suicide study: Young versus old subjec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577-582.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6-30.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heikh, J. I.,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T. L. Brink (Ed.),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165-173). New York: The Harworth Press.
- Szanto, K., Prigerson, H. G., & Reynolds III, C. F. (2001). Suicide in the elderly. *Clinical Neuroscience Research, 1*, 366-376.
- Uncapher, H., & Arean, P. A. (2000). Physicians are less willing to treat suicidal ideation in older patients. *J Am Geriatr Soc, 48*, 188-192.
- Uncapher, H., Gallagher-Thompson, D., Osgood, N. J., & Bonger, B. (1998).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older adults. *Gerontologist, 38*, 62-70.
- Wenzel, A., Brown, G. K., & Beck, A. T. (2009). *Cognitive therapy for suicidal patients: Scientific and clinical applica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tzel, R. D. (1976).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e intent. *Arch Gen Psychiatry, 33*, 1069-1073.

1 차원고접수 : 2014. 04. 18.

수정원고접수 : 2014.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4. 06. 0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Kang, Nan-Mi

Chung, Hyun-Hee

Dep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in which depression and hopelessness affecte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A total of 271 senior citizens (over the age of 60) inhabiting D city and K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measures included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Beck Hopelessness Scale, and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Based on previous research, a full/partial mediator model with depression as a mediating variable and the full/partial mediator model with hopelessness as a mediating variable were constructed. Hypothesized models were tested respectively in order to investigate which model best explain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variabl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8.0 and AMOS 18.0 and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was then conducted. When the validity of the pathway was analyzed, the model with depression as a full mediator was adopted.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depression as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was releva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validates the pathway in which depression and hopelessness develop and affect suicidal ide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early intervention and the specialized treatment for depression are necessary in preventing suicidal ideation amongst the elderly.

Keywords: elderly, depression, hopelessness, suicidal ideation, full mediator